

E

english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하는 사랑

원제 《사랑의 문화 The Culture of Love》 저자 스티븐 켄 Stephen Kern 출판사 Harvard Univ. Press

변용란 | 번역가

버니지아 울프는 20세기 초에 들어서도 여전히 비평가들의 천대를 면키 힘들었던 여성의 글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이 책의 저자 역시 인간의 감성보다는 이성을, 내밀하고 사적인 사건보다는 거창하고 공적인 사건을 편애하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에게 유사한 맥락의 이의를 제기하며, 인생의 가장 심오한 신비이자 인간의 가장 강렬한 감정인 '사랑'의 진지한 탐구를 시도한다. 고작해야 얇은 흥미를 끌기 위한 '야사' 로나 언급될 뿐이었던, '사랑'의 설득력 있는 역사를 써보겠다는 역사학자의 주장이 일단 흥미를 유발한다.

책의 부제는 '빅토리아 시대에서 현대까지' 이나 엄밀히 말하면 1847년부터 1934년까지의 시기로 한정돼 있다. 굳이 특정 연도가 언급된 이유는 저자가 참고로 삼은 문학 정전의 출간 연도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문학작품 가운데서도 특히 소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시나 희곡보다 당대의 사회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잘 알려져 있듯 빅토리아 시대는 남녀의 영역과 성별 역할이 엄격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된 사회였다. 브론테 자매나 조지 엘리엇 등의 작가들은 남녀에게 이중의 잣대를 들이대는 당대의 보편적인 사회 통념에 반기를 드는 여성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지만, 구조적으로 억압된 성별 이데올로기의 커다란 틀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웠고, 문학작품 속에 재현된 사랑 또한 사회가 개인에게 부여한 역할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

그러나 생물학, 성 이론, 의학, 심리학, 교육, 성 정치학, 종교 등의 발달 및 변천은 사랑의 양상에 새로운 흐름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후대로 갈수록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문화적 재현 방식은 그 모습을 달리한다. 저자는 기다림, 만남, 욕망, 언어, 입맞춤, 성별, 권력, 질투, 청혼, 섹

스, 결혼, 이별 등의 열여덟 가지 소주제로 한 세기가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사랑의 문화적 변천사를 탐색한다. 주된 논거인 문학작품에 더하여 시대적 이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피카소, 샤갈, 클림트, 실레, 쿠르베, 로댕, 칸딘스키, 달리 등의 예술 작품도 함께 제시한다. 인용되는 문학작품엔 브론테 자매, 찰스 디킨스, 조지 엘리엇, 윌키 콜린스, 헨리 제임스, 토머스 하디에서 D.H. 로렌스, 제임스 조이스에 이르기까지 낮은 영미 작가의 소설이 중심을 이루며, 플로베르, 보파르, 니체, 릴케 등 비영어권 작가도 드물게 포함돼 있다.

인간 존재에 대한 하이데거의 철학을 논지의 길잡이로 삼고 있는 저자는, 남녀의 성별 역할이 보다 중시되었던 빅토리아 시대의 사랑이 현대로 접어들면서는 사랑에 빠진 '존재' 의미에 보다 심오한 사상을 반영하게 되어 비로소 진정성을 획득한다고 주장한다. 자의적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시대의 폭과, 예술작품의 선택이 좁더 넓고 다양했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모든 작품의 분석을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끼워 맞추려는 인상이 들긴 하지만, 드물게 만나는 사랑의 문화사라는 점은 여전히 눈길을 끈다. **★**



저자 | 주수용소: 아내 리는 수수께끼 | 저자 | 노부타 시오코 출판사 | 고단샤

김지효 | 번역가

결혼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결혼을 앞둔 대부분의 선남선녀가 갖는 결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닐까 싶다. 결혼환상, 로맨틱이데올로기라고나 할까. 사랑, 성, 결혼이 완벽한 삼위일체를 이룰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확고한 신념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로맨틱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하는 쪽은 대개 여성이다. 남성은 자신의 배우자인 여성에게 이데올로기 신앙을 요구할 뿐 정작 자신은 '나와는 관계없다'가 되기 일쑤다. 아내는 이런 삼위일체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채 남편의 일을 우선시하고 그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건다. 결혼해서 가정에 들어앉으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자신의 일을 버리고 육아에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 부으려면, 그 행위를 정당화 내지 미화시킬 이데올로기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오직 한 남자의 애정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거는 위험한 행위가 결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냈던 굳건한 믿음과 환상이 산산조각 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할리우드의 스타들처럼 그냥 확 갈라서 버리면 그만일까. 아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두렵다. 멀리 떨어져서 봐야 그 안전망이 얼마나 탄탄하고 거대한지가 눈에 들어온다는 '아내' 라는 자리를 던져버리는 것은 공포 그 자체다. 또한 갈라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리라. 그렇다고 불만스런 현실 앞에서 자포자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 살다보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 아니냐며 불행을 마치 훈장처럼 받아들이는 것도 옳지 않은 태도이며, 평 아니면 닭이라고 남편에게 걸었던 희망을 모조리 아에게 가져가 버리는 것도 결끄럽기는 매한가지다.

이렇듯 끝이 보이지 않는 가정의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여성의 다양한 내면적 갈등을 연구 분석하는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인생을 새롭게 조명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책제목이 말해주듯 여기 나오는 인물

japane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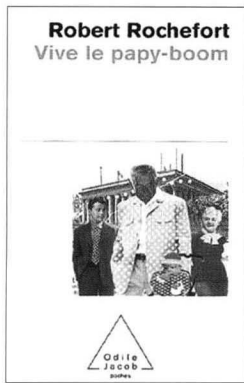
로맨틱리브가 가면뿐인 사랑으로 변질될 때

은 결혼환상이 깨져버려 이제는 한 치의 어긋남도 없는 분명한 현실 앞에 내몰린 아내들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길 갈망하면서도 대부분은 현실에서 탈출하기를 거부한다. 그러는 중에 결혼환상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가정을 점점 강제수용소 같은 분위기로 몰아가는데, 이때부터 부부문제도 두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고 자녀문제로까지 확대되어 간다.

결혼, 가정, 아내, 모성... 듣기만 해도 포근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을 주는 이 단어들은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보니 지금까지 자신의 것이었던 이 단어들을 하나라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사이에 가정은 서서히 제 모습을 잃어간다. 남편의 폭력 앞에서조차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비뚤어진 모성을 발동시킬 정도이고 보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없을 만큼 현실 탈출이란 것은 난제 중에 난제임이 분명하다.

거기에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을 거둔다.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라지지 않던가. 결혼이라는 제도가 여성의 인격마저도 마음대로 제단해 버리는 셈인데, 이런 분위기는 같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어김없이 존재한다. 같은 여성이라고 해서 봐주는 법이 없는 일종의 차별의식이다.

임상심리사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결혼, 모성, 가정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막강한 힘을 낱날이 파헤치고 있다. '아내' 라는 수수께끼를 풀어내고 있지만, 여성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 및 가정의 실상을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아내인 여성만이 아닌 성인남녀 모두가 읽어볼 만한 책이다. **★**



제목 《빠빠-붐 만세 vive le papy-boom》

저자 로베르 로슈포르 Rober Rochefort 출판사 Odile Jacob



french

베이비-붐 시대가 가고 빠빠-붐 시대가 온다

조정훈 | 번역가

우리 눈앞에 다가온 고령화 사회에 대한 예견은 한결같이 우울하다. 거리는 병든 노인들로 넘쳐나고, 젊은이들은 부모를 부양하느라 등뼈가 휘어지고, 국민연금은 고갈되고, 생산성이 떨어져 공장은 문을 닫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를 다룬 어떤 책은 고령화 사회를 핵전쟁, 테러, 지구 온난화와 같은 재앙에 비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지금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2019년이면 65세 인구가 14퍼센트 이상인 '고령사회'가 되며, 2030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을 65세의 노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 한다. 하지만 당연히 와야 할 미래의 현상을 재앙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무래도 쓸쓸하다. 인구에서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재앙이라 불릴 정도의 큰 문제일까? 이런 전망에는 은연중 노인들을 생산력을 잃어버린 무용한 존재나, 떠맡아야 할 짐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지도 모른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이며 경제학자인 로베르 로슈포르의 《빠빠-붐 만세》는 긍정적인 눈으로 고령화 사회를 바라본다. '빠빠'는 불어로 할아버지를 부르는 애칭이며 '빠빠-붐'은 '베이비-붐'에 대응되는 표현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생겨난 유럽의 베이비 붐 세대들은 이제 노인이 되었고 '빠빠-붐'이라는 새로운 세대를 이루게 된 것이다. 알다시피 프랑스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젊은층의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생산을 책임졌던 베이비 붐 세대들이 정년을 넘기면서 속속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극심한 인력난으로 생산성이 저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를 바라보는 이 책의 시선은 차분하고도 낙천적이다. 프랑스가 노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 예견되었던 것이고 그에 맞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다. 지은이는 다가오는 사회를 새로운 기회로 본다. 그동안 목적지도 모르는 채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숨가쁘게 달려가기만 하던 사회를 점검하고 병리현상을 고쳐 갈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지은이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 당연히 정년은 연장되고 70세까지 일을 계속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본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구세대의 경험과 기술력과 능률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어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55세에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하고 70세의 파트타임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사회가 준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점진적인 은퇴, 은퇴 후 부분 고용, 50살 이후의 고용교육 확대, 인터넷을 통한 재택근무, 파트타임의 자유로운 이동, 직급이 아닌 직능별 업무 연계 등의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 고령화 사회는 재앙이 아닌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런 시스템은 회사나 가족 구성원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예전에는 성인이 되어 스스로 경제를 책임질 때가 되면 아버지 세대는 퇴직하여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수명이 길어진 덕분에 아버지와 아들이 적어도 20년 동안은 함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3대가 가정 경제를 이어 나간다면 손자 세대는 경제적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고 할아버지 세대는 연금이나 사회보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가족들의 부양을 받으며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고령화 사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연금생활, 양로원, 중풍, 가난, 경제적 빈곤, 자식의 부담 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노인의 사회, 경제적 위치나 누려야 할 권리 등도 달라져야 한다. 이에 맞게 사회의 시스템과 문화를 바꿔나가야 하는 것은 미래 노령화 인구의 한 부분을 차지할 우리의 몫인 것이다. ■■



g german

어른, 아이 모두를 꿈의 세계로
안내하는 유럽의 명작동화들

원제 《세계의 민담 *Das große Märchenbuch*》

저자 타트야나 하우프트만 Tatjana Hauptmann 크리스치안 슈트리히 Christian Strich
출판사 Diogenes

김재혁 | 시인, 번역문학가, 고려대 독문학과 교수

어릴 적 내게 꿈을 준 조그만 동화책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그림 형제의 《구두장이 꼬마요정》이었다. 가난하지만 착한 구두장이 부부로부터 따스한 옷을 선물받은, 벌거숭이 구두장이 요정이 밤마다 몰래 나타나 멋진 구두를 만들어 놓고 간다는 내용의 좀 게으른 꿈을 꾸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때 그 그림책에서 본 열심히 일하는 조그만 구두장이 요정의 모습과 밤색 가죽으로 산뜻하게 만들어진 구두의 모습은 지금도 내 기억 속에 선명하다.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기가 싫거나, 검정고무신을 바닥에 구멍이 날 때까지 신고 다니던 당시의 형편에서 그 동화는 내게는 늘 하나의 구원이자 희망이었다.

이 동화가 실려 있는 그림 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집》은 독일어로 된 책 중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인쇄된 책이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화를 두 번에 걸쳐 두 가지 방식으로 읽게 된다. 첫 번째는 어릴 적에, 온갖 다채롭고 생생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세계가 진짜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박하게 읽는 것이고, 그 다음엔 훨씬 어른이 되어서 그 이야기들이 모두 꾸며낸 것이라는 점을 뚜렷이 의식하면서 읽는 것이다.” 이것은 동화라는 것이 소박하고 맑고 투명하며 공기처럼 우리의 가슴을 상쾌하게 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 유럽의 대표적 동화 100편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Das große Märchenbuch》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어린이로서나 어른으로서나 꼭 옆에 두고 틈날 때마다 읽고 싶은 책이다. 특히 한 권의 동화책이 우리에게 어필할 수 있는 특징 중의 하나가 삽화에 있다고 본다면 이 책은 우리의 기대에 충분히 값싸고도 남는다. 타트야나 하우프트만이 그린 투명하면서도 환상적인 수채화와 스케치는 그림틀에 끼워 벽에다

걸어놓고 싶을 정도이다. 안데르센의 〈임금님의 새 옷〉, 제이콥스의 〈잭과 콩나무〉, 그림 형제의 〈빨강모자〉, 페로의 〈장화 신은 고양이〉, 아파나세프의 〈흰 오리〉 등을 비롯하여 아일랜드, 영국, 세르보크로아티아,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프랑스, 몰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불가리아, 러시아 등지에서 취해 온 동화들은 현재의 우리에게도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면서 우리를 아름답고 환상적인 정신적 원시의 세계로 안내한다. 반 정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고 반 정도는 생소하면서도 상당한 흥미를 자아내는 동화들이다.

원래 독일어로 ‘메르헨(Märchen)’은 ‘동화’라기 보다는 ‘민담’의 개념에 가깝다. 그러나 이것이 ‘동화’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림 형제의 의도와 관계가 있다. 본디 민간에서 수집한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가 나오면서 주요 독자가 어린이들이임이 밝혀지자 그림 형제는 동화집을 펴낼 때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내용에 손질을 가했고 너무 끔찍한 장면이 있는 이야기는 아예 빼버리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메르헨’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동화’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이 책은 대체로 각각의 이야기의 원래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세계의 민담》이라는 제목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4]